



타이슨社, '무항생제 사육' 표현을 변경하기로 결정



장 궁 순 전무
바이엘코리아(주)

미국 최대 식품회사 중 하나인 타이슨푸드사는 문제가 된 닭고기 제품 상표에 '무항생제 사육(Raised Without Antibiotics)' 이란 표현을 '인체용 항생제의 내성 발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고 사육한 닭고기

(Chicken Raised Without Antibiotics that impact antibiotic resistance in humans)' 로 바꾸기로 했다고 밝혔다. 이 상표는 2008년 2월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한다.

미 농무성에서는 처음에 '무항생제 사육' 이란 표시를 상표에 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. 그러나 나중에 항콕시독제인 아이오너포어계 제제를 사용하는 것을 문제삼아 2007년 11월 6일자 공문에서 45일 이내에 그 표현을 바꾸거나 해당 약제를 사용하지 말 것을 명령했다. 아이오너포어계 항콕시독제는 그 제조 방법적으로는 항생제로 분류될 수 있기 때문이다.

타이슨사는 이에 대해 이 제제가 세균에 작용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약제가 아님을 들어 이의를 제기했다. 그러나 미 농무성과의 긴밀한 토의를 수 차례 거듭한 끝에 상표의 표현을 바꾸기로 결론지었다.

경쟁사들이 이 상표가 소비자들에게 잘못된

정보를 제공하여 마치 다른 회사에서는 나쁜 항생제를 마구 사용하는 것으로 오도할 수 있다고 법원에 판매 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이를 맡은 미 볼티모어 지방법원의 캐서린 블레이크(Catherine Blake) 판사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기각한 바 있다.

타이슨사는 그 결정의 배경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했다고 한다.

첫째, 육계산업은 콕시듐병을 콘트롤하지 못하고는 유지할 수 없다.

둘째, 아이오너포어계는 매우 뛰어난 항콕시독 예방 약제이며 사람에게 안전한 약제라고 미 연방정부에서 승인했다.

셋째, 아이오너포어계는(제조 방법으로는 항생제와 같지만) 세균에 작용하는 약제가 아니며, 특히 인체에 사용하는 어떤 항생제에도 내성 문제를 일으키는데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다. 즉, 실제 사용상의 의미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항생제라고 부르는 약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.

